

# 이상기후에 농작물·가축 피해 극심

### 전남도, 농작물 3만1569ha·가축 7만4000두 폐사 4종 정책보험 1522억 투입... 피해 농작물·농업인 지원

전남지역은 지난 3월부터 계속되는 저온, 우박, 폭우, 태풍, 폭염 등 5차례의 재해로 인해 농작물 3만1569ha와 가축 폐사 7만4000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4종의 정책보험에 사업비 15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들어 지난 3~4월 저온, 6월 우박, 6~7월 극한 폭우, 8월 태풍과 폭염 등이 이어졌다. 정책보험에는 ▲보험료의 90%를 보조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70개 품목이며 보험료의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이다. 올해는 12만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170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상해부터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연중 언제든지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150억원(자부담 30억원)을 사용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7종이다. 올해 사업비는 102억원(자부담 20억원) 규모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올해 2500농가를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작업 중 인명사고부터 농작물, 시설물, 가축 피해까지 촘촘히 보장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투기 우려 등 5가지 조항은 제외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어 온 광주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조항의 회의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 마련, 회의 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인 임의 규정이나 긴급성을 담보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전면 공개, 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6월 개표했다.

시의회는 전면 공개, 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지난 6월 개표했다.

5대 예외조항으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

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방송·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 정한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공개 조항만 있을 뿐 회의 공개는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안 조례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또 위원 위촉 평가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30주년' 광주도시공사 "새로운 100년 향해 출발"

### 강기정 시장 "미래 도시 그려달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광주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일의 도시'를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도시공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광주도시공사는 주택·산업단지 등 도시에 많은 공헌을 했다"며 "앞으로는 양적 성장의 광주에서 균형 성장, 사람이 편리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이날 "힘껏 달려온 30년, 다시 뛰는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청사진 등을 제시했다.

도시공사는 1993년 9월 광주시 100% 출자자를 통해 설립돼 급조 2지구, 상무지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등 도시개발과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공사는 지난 1일 공사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정민근 공사 사장,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광주시 제공>

# "토요일엔 예술의 거리로 오세요"

### 광주시, 시즌2 행사...공공미술·인문학 등 다채

광주시는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예술의 거리 시즌2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술의 거리 축제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재미있는 아트공방'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6월 개막했다.

시즌2는 9~10월 매주 토요일 차별화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공연, 인공지능(AI) 특화 프로그램, 시민 인문학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주요 행사는 성인 대상 예술체험 프로그램, 공공미술 설치, 인공지능(AI) 특화프로그램, 내걸 예술행, 공동 마스터클래스 등이다.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금박부채 면에 수채화 그리기, 모란꽃 한송이 그리기, 라임 플라스터 미니 트레이 만들기 등이며, '공공미술 설치'에는 예술의 거리 입주작가 등이 참여해 예술의 거리 건물 외벽에 대형 부조 벽화를 그리고 아트벤치와 옥상 회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제작하고 있다.

또 매주 인공지능(AI) 특화프로그램, 내걸의 예술행, 아트테라피 체험, 공동 마스터클래스 등 새로운 체험 콘텐츠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술의 거리 만화웹툰미술학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 미니 웹툰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SOC사업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

### 연륙·연도교 등 주요 도로망 613억 증액...국고 4827억 확보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전남이 계획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정부의 긴급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지역 도로 분야 예산으로 4827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613억원(14.5%)이 늘었다. 당초 3318억원이 편성됐으나 전남도가 사업의 당위성 등을 기

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해 부처 안보다 1509억원(45.5%)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속도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에 1028억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또 2단계(강진-완도) 구간도 지난 8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1단계 준공 이전에 연이어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연륙·연도교 및 주요 간선도로망은 12건(3749억원)이 확보됐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105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535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400억원) 건설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적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주·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에 50억원이 반영돼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희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외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기업 공모

### 11~22일 접수...경영안정자금 등 15가지 혜택

광주시는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024~2025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조정회차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모집 공고일(9월 1일) 기준 광주시

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 가능하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